

지하철 안내표지 현황 진단 및 개선 방안

강동운*[†], 채운혁*

초 록 최근 철도는 대중교통 내 수단분담률 증가와 함께 외국인·고령자 등 이용자 특성의 다변화로 인해 직관적인 방향 안내 체계에 대한 요구가 커지고 있다. 서울 지하철은 중착역·대표 환승역 중심의 랜드마크 기반 안내 방식을 채택하고 있어, 이용자가 탑승 방향 판단에 어려움을 겪는다. 본 연구는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이용자의 실제 이동 경로 판단 과정(wayfinding)을 반영한 개선안을 제시하였다. 일본 지하철은 고유 역 번호와 노선 번호 흐름(G05→G17)을 병기하는 경로 기반 방향 유도 방식을 통해 탑승 방향을 직관적으로 인지할 수 있다. 이에 본 연구는 지하철 안내표지 개선을 위해 이용자 중심의 안내 체계를 강조하고 고유 번호 활용 가이드라인 표준화 및 관련 제도 법령화, 안내체계 적정성 평가 제도 강화, 디지털 플랫폼 연계 등 제도적·정책적 실행 방향을 함께 제안하였다.

[†] 교신저자: 한국교통연구원 철도교통연구본부(dwkwang7@koti.re.kr)

* 한국교통연구원 철도교통연구본부